

# 구례군 산동면-성남시 태평3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 지역적 특성 토대 양 지역간 발전·번영 위해 상호교류 “활발한 교류 통해 지역 공동 발전·도농간 상생 실현”

구례군 산동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규동)와 성남시 태평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배화자)는 지난 23일 산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양 지역의 주민자치위원과 동·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식을 갖고 지역적인 특성을 토대로 양 지역간 발전과 번영을 위해 문화·관광·경제 분야에서 상호교류하기로 합의했다. 지리산 자락에 산수유 등 농업을 주로 하는

구례군 산동면과 재래시장 등 성남시의 지역 중심 상권을 이루고 있는 성남시 태평 3동은 지역적 특성은 다르지만 도농 주민자치위원회가 손을 맞잡고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로 뜻깊은 결의를 다졌다. 특히, 산동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농특산품인 산수유, 오이, 고로쇠, 감 등 직거래 판매에 관심을 갖고 양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결연식 후 오찬 자리에 함께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도농 간 조화로운 자매결연의 의미를 높게 부여하며 양 지역이 상호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규동 산동면주민자치위원장은 “태평3동과 산동면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이 오히려 양 지역의 협력과 교류하는데 이점이 된다”라며, “양 지역의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공동 발전은 물론 도농간 상생을 실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화자 태평3동 위원장은 “태평3동은 유동 인구가 많고 중심 상권이 형성된 전형적인 도시지역으로 농업을 터전으로 하면서도 관광



자원이 풍부한 산동면과 특별한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라며, “도농 상생을 위한 우호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지난해 11월 34명 위촉·활동 중... '주민의 생활불편해소 위한 의견 청취'



화순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원모니터요원은 주민고충과 생활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군정에 전달하여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작년 11월에 34명이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는 민원모니터요원이 현장에서 수집한 군민의 고충과 각종 불편사항의 개선을 건의하는 자리로 특히 이번 간담회는 군수가 직접 답변하여 행정의 신뢰감을 더했다. 민선8기 출범이래 구북구 군수는 지금까지 90여 차례의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민원모니터요원 6명 중 5명은 민원을 건의하여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군은 절차에 따라 해당 읍면과 실과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군 관계자는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고충을 수시로 듣고 개선하여 군민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수권기자

## 김한중 장성군수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 총력”

김한중 장성군수가 27일 오전, 장성을 밀동 저수지에서 농업용수 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김 군수는 앞선 26일에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성호를 찾아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연일 현장 확인에 나선 김한중 군수는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를 수 있도록, 영농기 가뭄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비가 적게 내리니 평균 저수율 역시 59.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장성군은 영농기 가뭄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성=김수권기자

## 담양군 “집 앞으로 평생교육을 배달합니다”

학습자 맞춤 교육 제공하는 ‘찾아가는 배달강좌’ 강사 모집

담양군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벗어나 군민이 원하는 주제 및 장소, 시간에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배달강좌’의 강사를 모집한다. 응시분야는 문화예술 및 인문학 등 출강해 수업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 분야이며 강의분야의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을 갖추거나 자격증이 없다면 1년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담양=박종영기자

강사등록 접수기간은 오는 4월 11일까지이며, 담양군 평생교육 홈페이지인 ‘평생학습정보방’ 강사등록에 등록을 먼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군민과 함께 새로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나주시, 국가균형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 선정 쾌거

나주시가 재해·재난에 취약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이창동, 동강면 2곳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에 착수한다. 나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이창동 골모실, 동강면 상촌·서촌·동전·연화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낙후된 농촌 오지, 도심 속 달동네 등 취약 마을 주민의 기본 생활 수준, 안전 보장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을 ‘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창동 골

모실 마을은 영산대학교에서 이창동으로 이어지는 경사면, 노봉산 밑 마을 정비를 통한 생활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사업 면적은 총 7만4154㎡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44억 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촌형 사업 대상지인 동강면 대전리 4곳 마을(상촌·서촌·동전·연화)에서도 재해·사고 위험성이 큰 마을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한 생활 안전성 확보, 주택 정비, 생활 위생 인프라 개선에 힘을 쏟는다. 총 18만 7000㎡규모로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5억원 등 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된다. 나주=송준표기자

## 곡성군, 나무 나눠주기 행사 성료

곡성군이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25일 곡성을 뚝방정원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과 곡성 방문객들은 자두·살구 등의 묘목 800주와 철쭉 400주를 무료로 분양 받았다. 곡성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나무를 나눠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잘 마무리됐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께 나무를 나눠드릴 수 있도록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매년 개최해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들이 나무 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림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와 숲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